

우주항공복합도시 완성 범군민 서명운동 실시해

고흥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위한 서명운동

고흥군은 국가 우주항공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과 국가 핵심 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개별 법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12월

2일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과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하고, 4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동참했다.

고흥군은 특별법 조속 제정과 핵심 인프라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서명운동을 추진하게 됐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오프라인 서명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명은 2월 2일부터 고흥군 대표 누리집과 공식 SNS 채널의 배너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관내 주요 시설에 홍보 현수막과 배너를 게시하고, 2월 5일 재경고흥향우회 행사를 시작으로 각종 행사장에 서명운동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고흥군은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 활동을 강화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과 국가 핵심 우주 인프라 유치를 통해 '한국형 스타베이스(Starbase)'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덕현 기자

군산시새만금컨벤션센터, 지역 MICE 거점으로!

군산시, 예비국제회의지구 연계 글로벌 도약 박차

전북특별자치도 유일의 전시·컨벤션센터인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가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 마이스(MICE) 거점으로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년 'GSCO'의 운영 실적이 7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전시·이벤트 사업 2억 2,000만 원 ▲컨벤션 대관 사업 3억 7,000만 원 ▲부대시설 임대 등 1억 4,000만 원 등 전 분야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실적 증가와 함께 전체 방문객 수 역시 2024년 11만 1,322명에서 2025년 12만 7,669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소비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확대에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GSCO'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비 확보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면서 2025년과 2026년 연속 '예비 국제회의지구' 선정을 통한 국제비 총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군산시는 확보된 국제비를 바탕으로 예비 국제회의지구와 연계한 대형 국제행사를 집중적으로 유치해 'GSCO'를 국제적 수준의 마이스 복합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런현 과정은 “이번 예비 국제회의지구 선정을 발판 삼아, 군산을 글로벌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나갈 계획.”이라며 “새만금의 광활한 인프라와

이영임 기자

통합돌봄사업 시행해 의료·요양·주거·돌봄 지원

순창군은 올해부터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요양, 주거, 일상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노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 약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총 7억 6천만원이 투입된다.

앞서 순창군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후, 유관 부서 간담회, 민간 협력기관과의 실무 협의, 현장 중심의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통합돌봄사업은 ▲지역 특화서

비스 ▲의료·요양·보건 연계서비스 ▲장애인 연계서비스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군민의 상황과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군은 이를 통해 개별 욕구에 따른 통합적 돌봄을 제공하고,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일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특화서비스 분야에는 주거환경 개선, 영양 도시락 지원, 가사지원, 병원동행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군은 특히 농촌 지역 특성상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들을 보완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위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

업’이 운영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팀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 간호, 돌봄 연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수급자에게는 재가의료급여를 통해 식사, 이동, 생활 지원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퇴원 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연계서비스로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포함된다.

최영일 군수는 “누구나 익숙한 공간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승민 기자

전남김, 국내 코스트코 모든 매장 입점한다



전라남도는 29일 신안의 (주)신안천사기업에서 ‘케이(K)-전남김’의 국내 코스트코 전 매장 판매를 기념하는 선적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을 비롯해 권동혁 (주)천사김 대표, 이우승 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코스트코 입점을 축하했다.

이날 선적한 ‘K-전남김’은 전국 코스트코 20개 매장에서 설 명절 선물용 세트로 판매되며, 판매 기간은 2월 18일까지다. 1만 3천 세트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케이-전남김’은 전남도가 추진

중인 ‘전남 김 브랜드 육성사업’의 성과물로, 전남산 원초를 사용해 위생·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한 프리미엄 김 브랜드다.

전남 김을 차별화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육성하고, 김의 주산지인 전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케이-전남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내외 시범 판매를 통해 943세트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소비자 반응과 상품성을 검증받았다.

전남도는 이번 코스트코 입점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형 유통시장 진출에 나

선다. 이번 국내 코스트코 1차 입점 성과를 토대로, 2026년 미국 등 해외 코스트코 매장 입점과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유통사와 협의해 현지 맞춤형 패키지를 개발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2025년 전남 김 수출 실적은 4억 3천만 달러로 전국 11억 3천만 달러의 38.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김 수출 7억 달러를 목표로 김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이번 코스트코 입점은 케이-전남 김이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상품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김을 비롯한 전남 농수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해 인지도 제고와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지역 기업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인공지능(AI)·스마트 양식기술 도입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천849억 원을 들여 스마트 양식장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5대 분야 78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덕현 기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 제출했다

전북도, 범도민 의견수렴 거쳐 지자체 독자 개발계획 수립 후 전국 최초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29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것은 전국 최초다. 현재 국내 금융중심지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두 곳뿐으로, 전북이 제3의 금융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중심지 예정 구역은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총 3,590ha다. 도는 이를 기능별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핵심 금융기관이 입주할 중심업무지구 0.14㎢, 연관 산업과 지원 시설을 배치할 지원업무지구 1.27㎢, 금융인력의 정주 여건을 조성할 배후주거지구 2.18㎢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자산운용, 농생명, 기후에너지 등 전북의 강점 분야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차별화된 금융 모델을 내세웠다.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에 이어 전북 고유의 특화 영역을 구축해 국가 금융산업의 삼각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6월경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정치권과 경제계, 도민과 긴밀히 협력해 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과 국가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 방침이다.

이에 앞서 KB금융그룹은 지난 28일 전북혁신도시에 ‘KB금융타운’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KB증권·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 KB국민은행 비대면 상담 센터 ‘스타링크’, KB손해보험 광역스마트센터가 들어서며, 기존 인력 150여 명에 100여 명이 추가 배치된다.

도는 국내 대표 금융지주사의 투자 결정을 환영하며, 금융중심지 지정 후

진에 동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지원이 뒤따른다.

금융기관 유치와 집적화를 위한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신규 채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이 지급된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전액, 이후 2년간 절반이 감면된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인센티브를 넘어 금융기관 집적과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의 금융중심지 추진은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며 기대를 모았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도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정 신청을 본격화 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전북연구원과 함께 개발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약 9개월간 관계 부처와 전문가, 유관기관의 자문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10~11월에는 20일간의 도민 의견 공모, 금융기관·전문가 간담회,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12월에는 도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전북은 그간 금융도시로서의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글로벌 금융기관 16곳을 유치했고, 전국 최초로 핀테크 육성지구를 지정했다. 이전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금융 교육 활성화 등 제도적 지원책도 갖췄다.

이상호 기자

장수군 호남권 최초 고분 보호돔 조성 착수

삼봉리 고분군, 보존·활용 동시 실현 역사문화 공간으로



구조기둥을 설치하지 않는 공법을 적용해 문화유산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반영됐다.

철골 트러스트 막구조 등을 활용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람 동선과 시야를 고려한 공간 구성으로 관람시설로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

다. 시설 내부에는 영상부스, 무인카페부스, 관람부스, 전망부스, 관람회랑 등이 조성되며, 발굴작업공간과 전시·교육 체험물 제작·설치까지 포함한 관람 편의성과 체류 요소를 동시에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김서주 기자

광주시·전남도 ‘찾아가는 통합 타운홀미팅’ 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각 지역을 순회하며 시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광주시는 경제·환경·문화 등 10개 분야의 직능별 공청회도 운영하는 등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타운홀미팅은 먼저 서남권에서 열린다. 서남권 합동공청회(KBC 주관)는 2월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해남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개최된다. 이어 광주권 합동공청회(광주MBC 주관)는 2월10일 오후 1시55분부터 3시55분까지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다. 마지막으로 동부권 합동공청회(KBS광주 주관)는 2월13일 오후 2시부터 3시50분까

지 열릴 예정이며, 장소는 추후 확정된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 전남도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광주전남 통합도민과의 상생토크’도 마련한다. 광주시와 인접한 동일 생활권인 장성군을 시작으로 ▲1월30일 여수시 ▲2월5일 영광군 등에서 ‘도민과 상생토크’를 이어갈 예정이다. 상생토크에서 나온 시·군 특성과 주민 관심사 등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방송 3사와 함께 투명하고 열린 방식으로 소통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손권일 기자